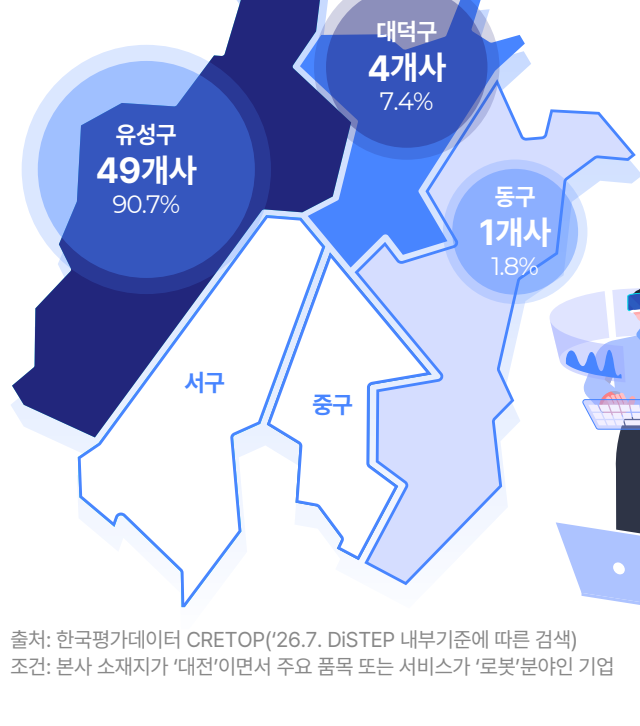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대전

대전광역시 로봇 산업 주요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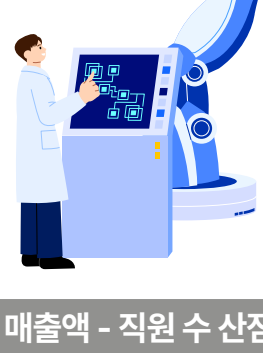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로봇산업 연구개발 및 주요기업 현황

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로봇기업 수(총 54개社)



유성구 - 대덕특구 일대 기업 밀집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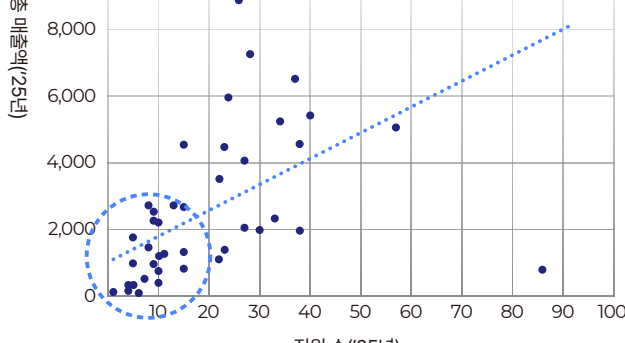
- ▶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 기술혁신 생태계
- 특구 내 다수의 출연연과 대학이 밀집
- 고급 R&D 인력 집중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인재가 유입
-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및 R&D 벨트 조성
- 이를 통한 연구성과의 사업화, 창업 등 기업이 정착하는 구조 형성



대전 로봇기업 상위 10개社('25년 총 매출액 기준)

연번	기업명	주요제품 분야	직원 수 (명)	총 매출액 (백만원)
1	리컨텍	로봇 부품	91	11,159
2	에스엔	로봇 제어 솔루션	26	8,894
3	바람시스템	스마트 홈 로봇	28	7,246
4	밥스	산업용 로봇 핸드	37	6,492
5	웰코리아	산업용 자동화 장비	24	5,923
6	씨엔테크	IoT 및 스마트 팩토리	40	5,377
7	블루텍	국방 로봇	34	5,214
8	트위니	자율주행 물류 로봇	57	5,035
9	에스엘엔	수중 산채 청소 로봇	38	4,531
10	모션텍	서보모터, 감속기 등	15	4,49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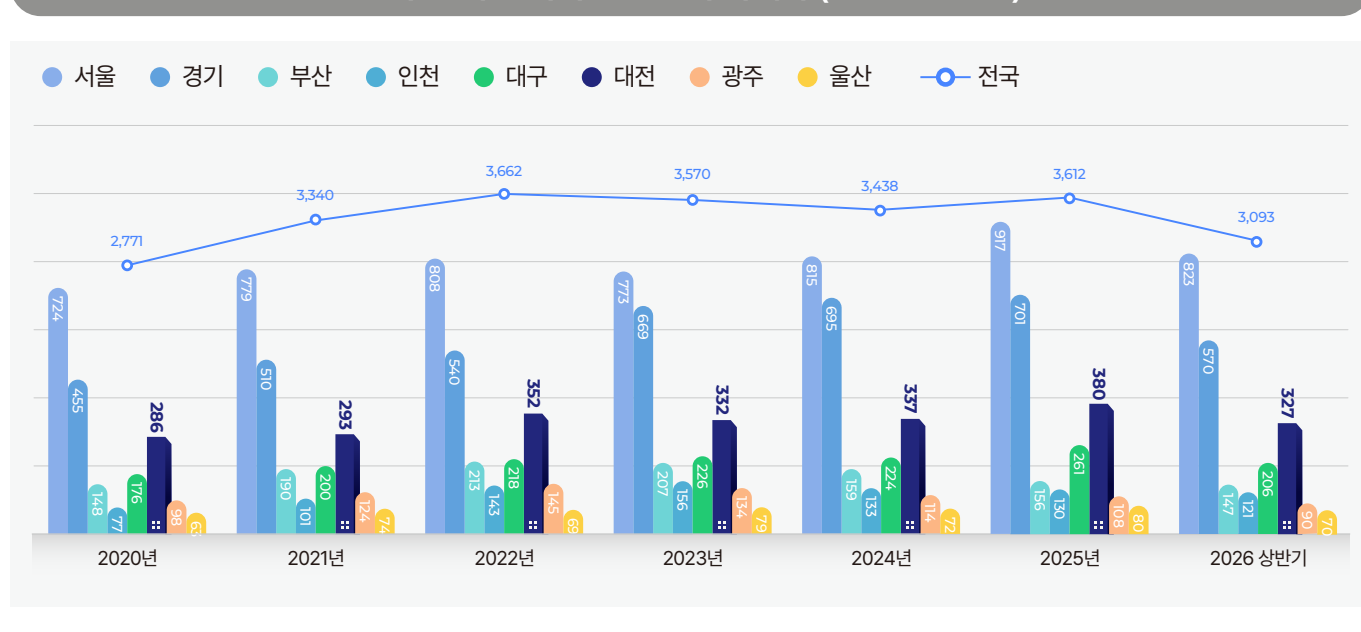
대전 로봇기업 매출액 - 직원 수 산점도



- ▶ 대전시 로봇 관련 기업은 대부분 직원 수 20명 이하, 매출액 약 40억 이하 수준에 분포하고 있어 소기업 비중이 높음

국내 주요지역 로봇산업 과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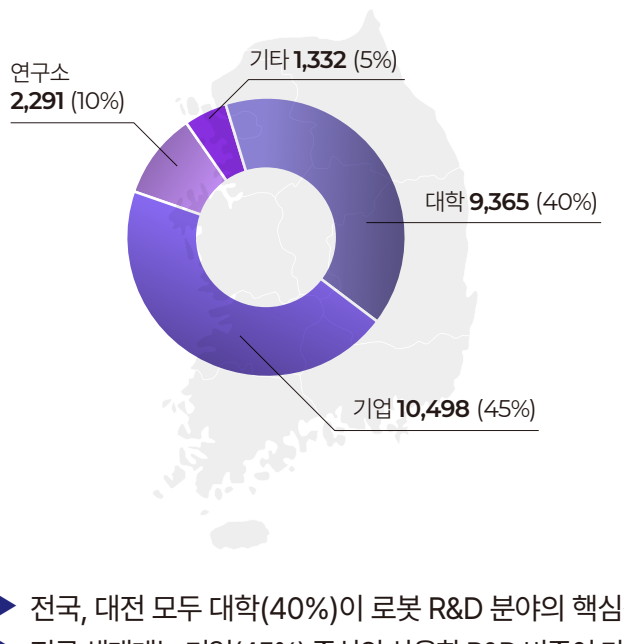
전국 vs 주요지역 로봇 분야 과제 수('20~'26 상반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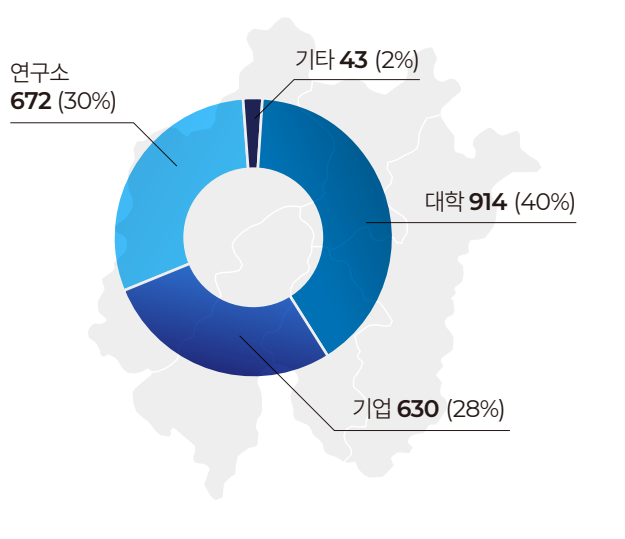
- ▶ 최근 5년('20~'26 상반기) 전국 로봇산업 분야 연도별 과제 수는 완만한 상승세
- ▶ 서울은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1위 지역. 경기 침체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로봇 산업의 중심지 역할 수행
- ▶ 대전은 서울, 경기도에 이어 매년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이는 다수의 출연연과 KAIST, 충남대 등 고등교육기관 및 관련 기업이 집적되면서 형성된 산업생태계의 성과로 추정
- ▶ 대전은 타 비수도권 지역(부산, 대구, 인천 등) 대비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임. '20년 286건에서 2025년 380건으로 약 32.8% 급성장하며 비수도권 로봇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 수행

로봇산업 연구수행 주체 분석('20~'26 상반기)

[전국] 로봇 R&D 분야 연구수행 주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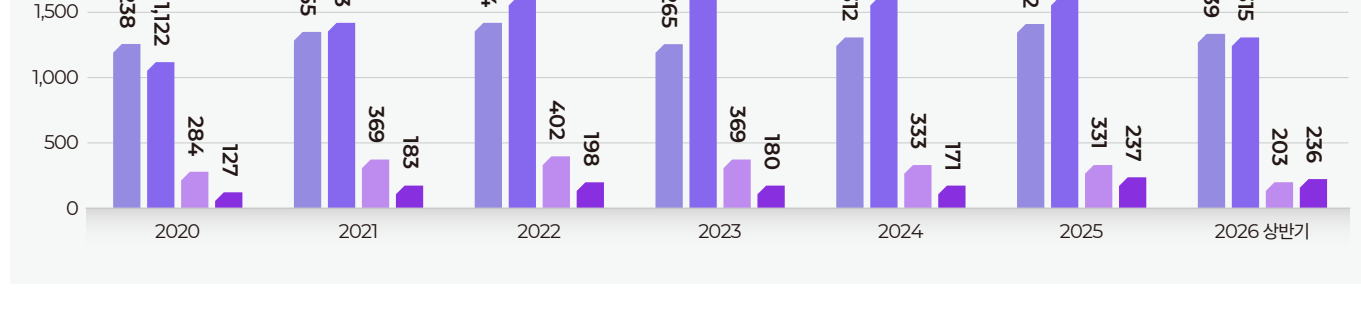


[대전] 로봇 R&D 분야 연구수행 주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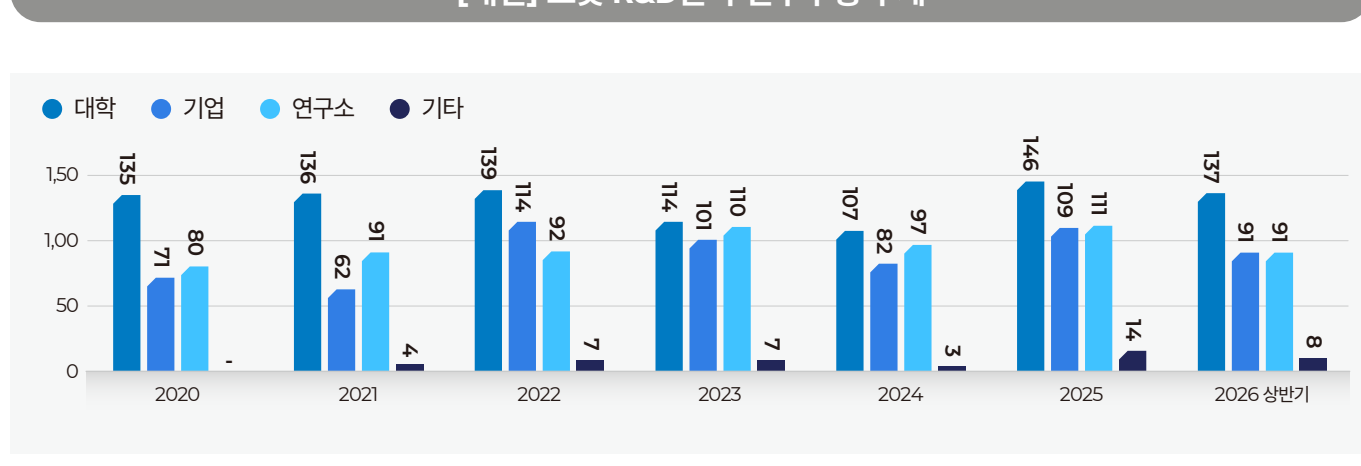
- ▶ 전국, 대전 모두 대학(40%)이 로봇 R&D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
- ▶ 전국 생태계는 기업(45%) 중심의 상용화 R&D 비중이 가장 높으나, 대전은 연구소(30%) 비중이 전국 평균(10%)의 3배 수준
- ▶ 대전은 출연연 중심의 풍부한 인프라 덕분에 대학(40%)과 연구소(30%)가 협력하는 원천기술 중심의 R&D 구조가 강함
- ▶ 대전이 전국적인 로봇 분야 연구수행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연구소, 대학 인프라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이 지역 내 기업 (28%)의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[전국] 로봇 R&D분야 연구수행 주체



- ▶ 해당 기간 내 기업이 대학보다 많은 연구를 수행하며, 민간기업이 로봇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
- ▶ 대학은 급격한 증감 없이 꾸준히 연구를 수행하며, 기초·원천기술 공급 역할 담당
- ▶ 전체 규모 대비 연구소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핵심기술 개발 및 공공 R&D 지원 역할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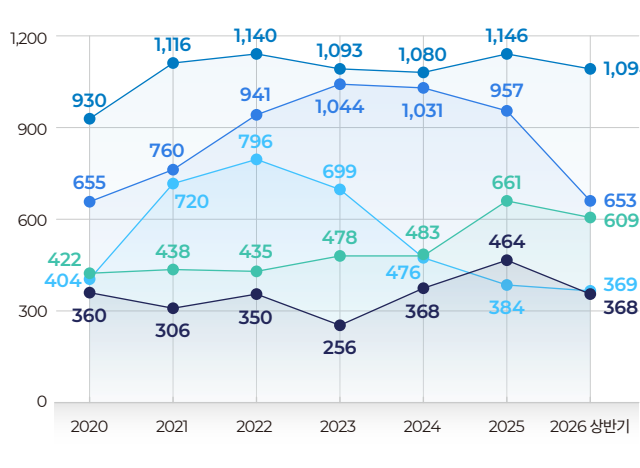
[대전] 로봇 R&D분야 연구수행 주체



- ▶ 대전은 로봇 R&D와 관련해서 대학이 가장 큰 연구수행 주체
- ▶ 연구소 비중이 전국보다 매우 높으며, 이는 출연연 중심의 연구도시라는 특성이 반영
- ▶ 기업 규모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성장세와 달리 수치상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뚜렷한 성장 추세는 나타나지 않음
- ▶ 대전은 대학+연구소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업보다 큰 비중을 차지, 연구개발은 활발하지만 산업화 주체는 상대적으로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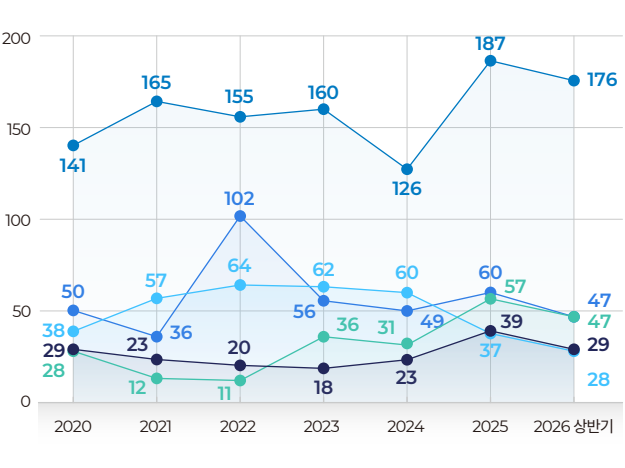
로봇산업 과제수행 부처별 현황('20~'26 상반기)

[전국] 로봇 R&D 분야 부처별 과제 수



- ▶ 과기부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매년 1,100건 안팎의 과제 수를 꾸준히 유지
- ▶ 과기부(원천기술)와 중기부(벤처·창업)가 초기 로봇 생태계의 '양적 팽창'을 주도했다면, 최근('25~'26) 산업부 중심의 '실제 대형 산업화 및 실증'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됨
- ▶ 이는 정부가 로봇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, 제조·물류·서비스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·확산하는 단계에 역량을 집중 하고 있음을 시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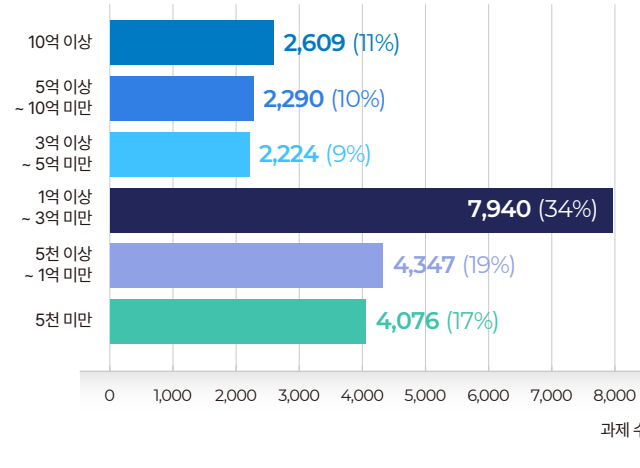
[대전] 로봇 R&D 분야 부처별 과제 수



- ▶ 과기부 단독 과제 수가 타 부처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
- ▶ '26년 상반기 기준 산업부와 중기부의 과제 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, 대전의 로봇 정책이 '실증 및 산업화'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▶ 대전은 과기부 예산 의존도가 높아 원천기술 경쟁력은 최고 수준이지만, 이를 제품화하고 매출로 연결할 중기부·산업부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
- ▶ 대전시 차원에서 과기부 과제로 확보한 로봇 원천기술을 산업부의 '로봇 실증·보급 사업' 및 중기부의 '기술창업 지원 마중물 사업'과 연계되는 패키지 지원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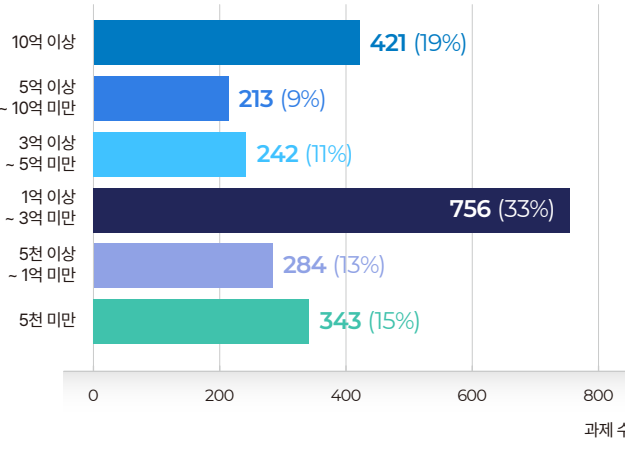
로봇산업 정부투자 연구비 분석('20~'26 상반기)

[전국] 로봇 R&D 분야 정부투자 연구비 구성



- ▶ 전체 과제의 약 70%가 3억 원 미만 연구비로 수행되며, 이는 정부의 연구기반을 넓게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보여짐
- ▶ 또한 동시에 10억 원 이상 대형과제도 11%를 차지하여 핵심기술과 전략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는 '저변 확대 + 선택과 집중' 전략이 병행되고 있음으로 추정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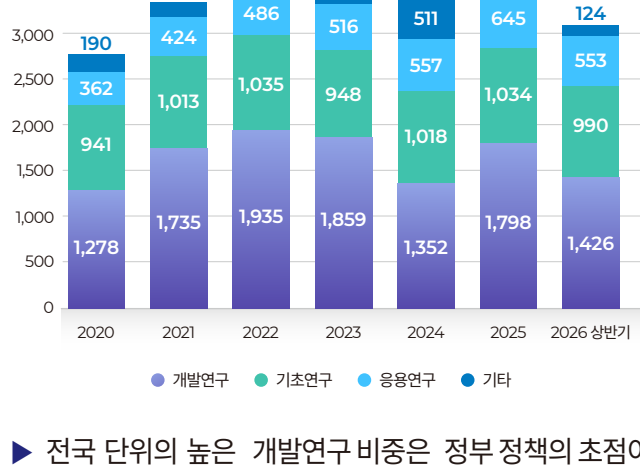
[대전] 로봇 R&D 분야 정부투자 연구비 구성



- ▶ 10억 원 이상 과제 비중이 전국보다 크게 높은 것은 출연연 등 대형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
- ▶ 단, 이러한 대형 국가 R&D 연구성과가 지역기업의 사업화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, 이에 따라 국가과제 → 기술이전 → 실증 → 창업 → 지역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후속 지원체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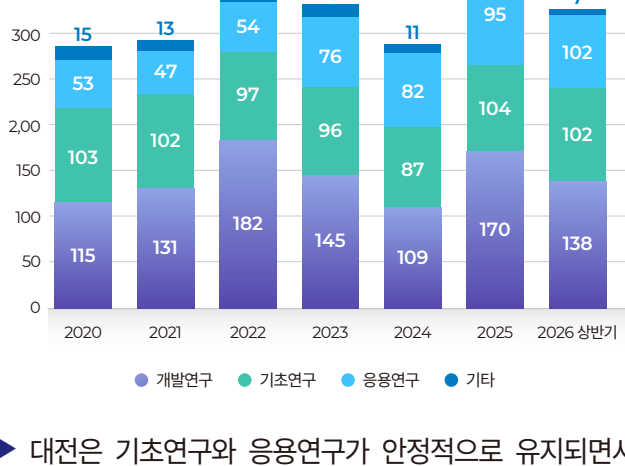
로봇산업 연구개발 단계('20~'26 상반기)

[전국] 로봇 R&D 분야 연구개발 단계



- ▶ 전국 단위의 높은 개발연구 비중은 정부 정책의 초점이 기초 기술 확보보다 기술 상용화와 산업화 적용에 맞춰져 있음을 의미함
- ▶ 응용연구가 증가하는 것은 연구성과가 논문이나 특허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화와 실증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. 이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 활성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

[대전] 로봇 R&D 분야 연구개발 단계



- ▶ 대전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개발연구와 균형을 이루고 있음
- ▶ 응용연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실증과 기술 이전 단계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함

